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3> 무진 거사 장상영 (상)

어쩌다가 운전하며 장거리를 가는 도중 무료하여 라디오 채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종교방송이 잡힐 때가 있다. 그 날은 누군지는 몰라도 하도 인원이 뛰어난 설교를 하고 있기에 후여 설법기술 익히는데 도움이 될까해 그대로 두었다.

이름까나 날리는 외래 종교의 성직자라고 하는데 자기종교 이론에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종교에 대한 이해수준은, 아니나 다를까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말씀씨가 아깝군. 남의 종교와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부터 좀 해라.”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해지기 마련이다. 제대로 알면 감히 입을 뗄 수가 있겠는가. ‘전기(前期) 장상영’ (물론 ‘후기(後期) 장상영’과는 구별되는) 이 부활했다.

예전에 중원의 거사들 역시 처음부터 불교에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와 벼슬살이를 위하여 유가서를 끼고 살

자(前期) 장상영 부인이 어이없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미 ‘부처가 없는 것(無佛)’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새삼 ‘무불론’을 지어서 그들을 공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대학자이니 불교경전을 읽어보고 그 모순점을 찾아내 정당한 공박을 해 보십시오.”

자기모순을 일깨워준 부인의 안목에 감탄하면서 일단 ‘무불론’ 쓰기를 중지했다. 그리하여 불교의 경전을 섭렵하던 중 <유마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불법에 깊은 신심이 생겨 오히려 불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호법론>을 짓게 되었으니(後期 장상영) 참으로 아이러니다.

그리고 보면 그 부인이 안목 있는 ‘인로왕보살’ 인 셈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인연도 예상할 수 없다. 장상영이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어느 낮은 집에 목

게 되었다. 그런데 전날 그 집의 주인장(뒷날 장인이른)

왕보살’ 인 셈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인연도 예상할 수 없다. 장상영이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어느 낮은 집에 목

게 되었다. 그런데 전날 그 집의 주인장(뒷날 장인이른)



불교의 모순점 찾아내려고 경전 섭렵하던 중 ‘유마경’에 감명... 깊은 신심 생겨 ‘호법론’ 써

아은 까닭에 상대적으로 배불론적 성향을 바탕에 깔게 된 것 같다. 문제는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절집에 많은 기문(記文)과 비문(碑文)을 남긴 무진(無盡)거사 장상영(張商英 1043-1121) 역시 그러했다. 19세 때 과거에 합격하여 처음받은 소임이 문서와 장부 관리 및 정리였다. 어느 날 사찰에 들렀다가 잘 정돈된 경전과 불교문서들을 접하고서 “우리 공자의 가르침이 오랑개의 책만큼도 사람들의 숭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날 밤새도록 서재에 앉아 먹을 갈고 붓을 빨면서 종이 위에 기대 긴 한숨을 쉬면서 아반삼경이 피도록 짙을 이루지 못하자 부인이 남편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길래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거사는 낮의 일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후 ‘무불론(無佛論)’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하

꿈에 선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정승을 맞이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첫새벽부터 방을 깨끗하게 치워두고 종일 기다렸으나 정승은 고사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해질 무렵 뺨지도 않은 꼬질꼬질한 두루마를 입은 가난한 선비가 찾아왔다. 긴가 민가 하면서도 훗시나 하고 예의를 갖추어 맞이한 후 그에게 물었다.

“선비께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요?” “과거보러 가는 길입니다.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울컥... 미래의 정승이란 말이지) “아직 부인이 없다면 내 딸을 그대에게 보내 집 청소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구려.”

거들 사양했으나 간청을 물리칠 방도가 없었다. 설사 낙방할지라도 혼인하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이튿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급제하였고 그는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마음 비우니 ‘눈높이 교육’ 선명

교사연수 - 통찰명상 수련연장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것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까?” “...?” “해와 달이 바뀌는 것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알고 감니까 모르고 감니까?”

새로운 삶의 방향 세우고

학생 대하는 마음자세 가다듬어

2006 학계 교사직무연수 ‘통찰명상(위빠사나) 수련회’ 제1기 연수 3월말인 7월 26일 오후 보리수선원. 보리수선원 선원장 붓다라카타 스님이 수련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자 조·중·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20명 수련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수행입니까.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현재입니다.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십시오.”

■ # 종교도 참가이유도 달랐지만...

7월 24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진행된 ‘2006 학계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제1기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불교·개신교·기독교·원불교 등의 종교인과 무종교인 등 종교가 저마다 다르다. 이들이 이번 연수에 참가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위빠사나 수행이 무엇인지 알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온 사람도 있고, 학교로 온 공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수행을 경험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불교의 수행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불교의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는데 종교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번 수행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물론, 교단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 # 몸·마음의 변화 알아차리기

“손바닥을 바닥에 대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을 손바닥에 두세요. 다시 마음을 손등에 두세요. 마음을 어깨에 두세요. 세 가지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느낌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것입니다.”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열린 ‘2006 학계 교사직무연수’ 참가자들이 좌선을 하며 ‘마음’을 챙기고 있다.

붓다라카타 스님의 말이 이어졌다. “좌선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손에 두었다가, 배에 두었다가 귀에 두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좌선자세를 푼 교사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도 공주대 교수이자 보리수선원 지도법사인 위오기 교수의 지도로 두 차례 경험을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걷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험(經行). 경험은 정진력을 키우는 좋은 자세로 좌선의 기초가 된다.

“편안하게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발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느끼십시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것 같지만 막상 경험을 하는 교사들은 적잖게 힘들어한다. 그래도 수행이 틀때보다는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한다.

10분간의 휴식,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누워 버린다.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수련생들은 경험과 좌선을 반복하며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 # 교사들의 반응

“마음이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각박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비우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다.”(서울안평초등학교 이영애 교사·61·불교)

“대학원에서 대체의학 가운데 음악치료를 공부하다 위빠사나를 만났었다. 위빠사나를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을 비울 수 있어 좋았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불교수행을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수행이 좋다고 생각해 두 분의 선생님에게 권유까지 했다. 개신교에는 이런 수행법이 없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서울방배중학교 윤인숙 교사·46·개신교)

“내 자신이 마음을 얼마나 등한시 했는지를 알게 됐다. 수련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룰 때 삼독심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원불교에서도 ‘속 깊은 마음공부’를 강조한다. 원불교 수행법은 아니지만 위빠사나 수련은 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서울성일중학교 김영화 교사·52·원불교)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았는데 마하는 부분을 풀지 못했다. 자신의 소개로 위빠사나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해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사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서울동북고등학교 윤석우 교사·43·무교)

글·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인내, 자비를 보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화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yun@avatar21.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게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약마)? 현재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 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역대제왕에서 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있을때마다 치우신의 영험으로 이면전쟁에도 반드시 이긴다. 하는 확신이 있었고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 경기인 폴란드의 결전이 있길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우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것입니다. 여태껏 어느 누구도 권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연대미상의 치우천황을 스님이 모시고 있었습니다가 어느날 신도님이 땅 매개 되지않고 일이 잘 풀리자마자 우연이 인터넷을 보다가 치우천황을 발견하고 스님이 모시고 있는분이 머리관은 치우천황(붉은약마) 송곳니는 치우천황의 상징입니다. 스님은 때가 옴을 알고 치우천황의 영험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치우제를 올리고 중생의 원을 발원하였습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놀라게도 치우천황은 꿈에 나타났고 땅은 매개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이소식을 세상에 널리알려 치우신의 영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치우천황은 그 자체가 승리와 성취입니다. 인연이 되시는분은 소승의 지장사에 오셔서 치우천황을 권견하시고 정성을 드리 기도 하시면 치우신의 신비의 영험으로 구하고 뜻하는바 대량행 대성취를 이루실것입니다.

● 위치 : 지하철 7층서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만나서 권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우도 중지와 함께 그 동안 스님이 경험한 치우천황 소원성취 기도법법을 지장사 치우천황의 운 기를 받은 후 정원을 해서 같이 보내드려드립니다. 기도법법을 보시고 열심 경건 하시면 반드시 영험을 받으실것입니다. 치우도는 보통입니다. 치우도를 소장하시면 반드시 영험을 받으실 겁니다.
● 축자크기 : (가로 50cm×세로 120cm) ● 보시금 : 10만원
조용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풍족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열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열전 등 열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후주, 북한보고서)

MBC-TV(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만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公 告

불교재산 관리법에 의해 1965년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 제83호로 등록된 대한불교 불입종 중명을 참칭하거나 도용할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고함.

불기 2550년 7월 21일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경암